



International Dance Day 2022 – 29 April

Author of the Message: KANG Sue-jin, South Korea
Dancer, Artistic Director of the Korean National Ballet KNB

Korean (original)

International Dance Day Message 2022 by KANG Sue-jin

인류를 멈춰 세운 COVID19 재앙 속에서 몸짓으로 표현하는 '무용'과 '무용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세계 무용인들과 함께 새삼 생각해봅니다. 언어가 없던 먼 옛날, 춤은 원초적인 표현과 교류의 수단으로, 영혼을 동작화하여, 상대의 감흥을 기대한 행위예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그원형의 예술을 가로 막았습니다.

'무용인'은 인류의 태생적 몸짓을 '안무'로 승화해 율동과 영혼을 매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구 없이 온 몸으로 예술을 형상화하기 때문에 일단 공연이 이뤄지면 원형 그대로의 복원이 어려운 순간예술이지요. 이 때문에 무용인은 영원히 움직여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셈입니다.

COVID19로 무대가 닫혔고, 무용수들은 설 곳을 잃었습니다. 사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대면으로 관객과 만나왔던 무용공연은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무용과 무용가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인간의 고뇌와 불안, 삶의 의지와 희망을 온몸으로 전하고 세상을 밝히던 때가 소중한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중세 유럽 흑사병의 여진이 계속되던 1841년 6월 28일 파리오페라극장에서 죽음을 뛰어넘은 사랑을 그린 지젤(Ballet Giselle)이 공연돼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일'을 무용인들은 기억합니다. 지젤은 그로부터 유럽 전역, 지구촌 곳곳에서 공연돼 팬데믹으로 황폐해진 인류의 영혼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젤 공연에 처음 선보인 '뿌엥뜨'(pointe)는 세상의 고난이라는 중력에서 벗어나려는 발레리나의 화려한 기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무용수들이 무대와 관객을 만나지 못해도 우리에게 적어도 춤이 있습니다. 저 창문 밖 외롭고 지친 관객들은 무용수들의 공감과 위로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용수들의 날갯짓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을 주고 팬데믹을 극복하는 용기를 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벌써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